KOLPING 콜핑이면 충분하다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81호 1판 (음력 1월 9일)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 무등산에는 하얀눈 중외공원엔 홍매화

광주·전남지역에 눈과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분 15일, 광주의 진산 무등산 정상이 하얀 눈에 덮여있다(위). 광주 북구 중외공원에서는 다가올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활짝 핀 홍매화가 봄을 기다리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고령화 전남’ 주택도 노후화 ‘삭막한 광주’ 72%가 아파트

### 전남 30년 이상된 건물이 절반 ‘전국 최고’ … 광주 단독주택 17% ‘전국 최저’

**국토부 ‘2015 건축물 현황’**

도시권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사라지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고령화, 인구 감소 속에 갈수록 노후 건축물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전남은 30년 이상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비중이 전국 최고치로, 안전사고, 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도시’인 광주의 단독주택 비율은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관련기사 2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2015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은 698만6913동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에는 14만1711동, 전남에는 62만4155동의 건축물이 있어 각각 2.03%, 8.93%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전국 건축물이 차지한 연면적은 35억3400만㎡로, 광주·전남 건축물 연면적은 각각 9073만5458㎡와 1억4788만5433㎡였다.

광주는 주거용 건축물이 9만8985동이었으며, 상업용이 3만1228동, 공업용이 3570동이었다. 전남은 각각 42만2872동, 8만6571동, 1만7334동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파트로 72.4%였으며, 단독주택(16.7%), 다가구주택(8.4%), 연립주택(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단독주택(49.4%), 아파트(43.3%), 다가구주택(3.3%) 등의 순이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광주와 전남의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의 비중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았다. 광주의 경우 30년 이상된 건축물은 1만4455동, 35년 이상된 건축물은 3만1921동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전남은 절반 가까이가 노후건축물이었다. 각각 3만4329동, 26만4902동으로, 47.9%가 노후건축물로 분류됐다. 특히 전남은 35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의 42.4%를 차지해, 전남도민들의 ‘주거의 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진도군으로 무려 60.5%에 달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목포시로 13.6%였다.

1인당 건축 면적은 광주가 61.63㎡로, 세종시를 포함한 8개 대도시 가운데 인천(58.25㎡), 대구(59.12㎡)에 이어 3번째로 좁았다. 전남은 77.47㎡로 9개 도(道) 가운데 5번째를 기록했다.

노경수 광주대 교수는 “주거 문제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지금까지 민간영역에만 이를 맡겨두면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 시가지와 비시가지 등의 격차가 심해졌다”며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정책과 수요·공급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선거구 획정은 언제…경선 일정 변경 대혼란

### 선관위 “선거구 없는 경선은 무효”
### 여야 수정 불가피…예비후보들 ‘한숨’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여야가 당내 경선 일정까지 황급히 변경하는 등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애초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자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내부 경선 절차부터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공백’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하면 사후에 예비후보자들이 경선결과에 불복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즉, 선거구 부재인 현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진행해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거구가 무효인 상황에서 안심번호 제공도 불가하다고 선관위는 통보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여야 모두 경선 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번호 사용 23일 전에 선관위에 신청해야 한다. 여야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더라도 그로부터 23일 뒤인 3월 중순에나 안심번호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2면으로 계속·관련기사 4면〉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립니다

### 고수들의 명강연…지식·교양·지혜의 향연

# 호남의 리더를 모십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기 졸업식 및 3기 입학식

**리더스 아카데미 1·2·3기 주요 강사**

최진석 엄홍길 황교익 서민 조혜련

##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4기 원생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오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4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수강생들에게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모집 인원 : 00명
- ■ 지원 자격 : 기업 최고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 교육 기간 : 3월～12월
-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30분(호텔식사 제공)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25일까지
-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光州日報

조선대 총장 직선제 유지될까 ▶6면
자동차 생산축 광주로 바뀐다 ▶18면
이세돌·알파고 대결 방식은?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